

순종하고 믿고 맡겨라

하나님은 사랑의 신, 영생의 신이다

승리제단을 핍박하고 모함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식인고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구세주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맡겨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다. 온 인류는 6천년 동안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려 왔다. 구세주를 왜 기다려 왔느냐 하면, 구세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20년 전에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태풍을 불어오지 못하게 한다. 여름장마를 못지게 한다고 말씀드렸다. 이 사람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는고로 출제도 하고 덩계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찌다가 맞는 것이면 지난 20년 동안 한 번쯤 틀릴 수도 있지만 20년 동안 태풍을 막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아왔던 것이다.

또한 20년 전에 이 사람이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려야 일어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려야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이 사람이 20년 전에 한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사람이 20년 전에 말씀드리기를,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지혜가 있다고 했다. 죽을 사람을 살리고, 불어오는 태풍을 막는 것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의 말은 마귀의 말이기 때문이다. 말이란 마음의 결과인고로 그 마음이 나라는 주체의식에 의한 것이려면 마귀의 마음인 것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에 의

한 말이나 글도 모두 마귀의 말이요 마귀의 글인 것이다. 마귀의 글과 말은 한정이 있는고로 그 표현에 한정이 있는 것이다.

이슬 성신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글이나 말이라야 표현을 하지 인간의 글이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슬을 내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선약과론, 구원론, 구세주론, 신앙론 등을 한 시간만에 풀어주는 것이다. 또한 옛세동안 일을 하시고 이제 되는 날 쉬셨다는 말은 바로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세주 만드느 일을 하시고 7천년 대에 마귀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구세주가 나오면 마귀의 세상이 끝나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말세이므로 말세가 곧 천국이요, 천국이 또한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은 바로 인간 역사 7천년 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왜 생각이 있는지, 왜 생명이 있는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쓰여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신14:1)이라는 말도 쓰여 있는 것이다.

백 번 제사보다 한 번 순종이 더 귀해

여러분들, 장님이 눈 뜬 사람을 따라가야 구령이 안 빠지듯이, 오늘날 눈 뜬 구세주가 출현해서 그 눈 뜬 구세주가 장님들을 살려 주려고 우측으로 가라고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곧 남쪽이 안 가지만 우측으로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우측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인 인간을 하



구세주 조희성님

나만 사랑하느 존재는 없다. 그런고로 하나님께서 우측으로 가라고 해도 고집을 부리고 가지 않을 때는 본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말을 돌려서 “우측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해 보라” 하는 것이다. 가다가 무서운 남떠러지를 보고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다. 남떠러지가 있는데도 계속 좌측으로 갈 수 없으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러게 내가 우측으로 가라고 하지 않더냐”하고 말씀하신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리는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빨리 이루어질 것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아는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백 번 제사보다 한 번 순종이 더 귀하다(삼상 15:22)는 말씀이 있는 것이다. 왜 순종을 해야 하느냐 하면 구세주는 진리에 눈 뜬 자인고로, 앞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세주가 귀한 존재이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온전히 맡기고 반납해야 구원이 있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왜냐하면 배를 탈 때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맡겨야 배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배사공이 진짜 구세주냐 가짜 구세주냐 하는 것이 문제지, 진짜 구세주라면 그 배사공이 이끄는 배에 무조건 타야 하는 것이다. 찬송가 가사에도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땅 있도다...’ 하는 가사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려면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맡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모님께서 “다리 건너가야 살아, 다리 건너 5리쯤 가면 옛장사 집이 있고 그 옛장사 집을 돌아돌아 50리를 더 가면 강이 있는데,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간 사람에게 내가 할 말이 있지 그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아니한 자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여기가 아니고 다리 건너가야 산다’는 말은 구원을 얻는 곳이 전도관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5숫자란 구세주를 의미하는 수이다. 그리고 5수는 구세주요 10수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발전(田)자는 완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요, 흙 토(土)자는 에덴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田)자와 토(土)자를 합친 리(里)자는 ‘에덴동산에 들어간 완성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돌아 50리를 더 가면’이라고 하신 뜻은 완성의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의 배를 탄 것이 되고, 또한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긴 것이 되는

고로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에게 내가 할 말이 있지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다’고 하신 것이다. 영모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해석해 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다.

이긴자의 출현으로 세상의 공기가 맑아진다

이 사람이 가끔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의 몸에서 생명의 물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생명의 물질은 세상의 오염된 공기를 맑게 해 주는 물질이다. 그런고로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전 세계의 오염된 공기가 맑아지는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고로 이 사람이 이 말을 자주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구세주가 나오면 왜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구원을 얻느냐 하면 제일 먼저 세상 공기가 하나님의 공기로 변화되므로 이 세상 곡식과 만물이 변화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곡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어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제단에 나오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제단을 몰라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다. 승리제단을 몰라서 핍박하고 모함하고 모략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여 그렇게 움직이는고로, 하나님은 그 마귀를 박멸소망하는 것이지, 당시 자식을 죽게끔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언젠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징계를 하기도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거지가 된 다음에야 후회를 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고로, 그때야 하나님은 살려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다. 살려달라고 빌지 않는 자, 은혜를 당기지 않는 자는 은혜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이 20년 동안 태풍을 막고,

이 세상의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고, 북한의 공산당의 마음을 돌이킬 정도면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능력과 힘이 있는 구세주를 만난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구세주를 만나 구세주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금방 석에 앉은 거나 마찬가지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금방석인 것이다.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인고로 영생을 얻는 그 자리를 금방석이 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땅 있도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라는 찬송가에서 ‘황금종’이라는 것은 영생을 논하는 사람의 목소리요, 영생하는 사람의 말씀이 바로 황금종인고로 여러분들은 지금 그 황금종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구세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기필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사람도 이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쁘니까 죄를 담당하고, 갖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지 이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아기를 길러본 사람은 알듯이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울어도 이쁘고 똥을 싸도 이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 가운데에 곰보자식, 병신자식이 있어도 다 이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더욱 더 이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100% 받들어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완성

피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핏속에 더러운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며, 영적(靈的)으로 말하면 죄의 마음(의식)이 없으려야 있을 수 없는 인성적(人性的)인 완성자(完成者)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사람이 생리학적으로 피가 맑고 깨끗하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생각이 천국을 항상 유지하게 된다. 이것이 모든 경전에서 말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 수심(修身)과 수신(修身)의 궁극적 도달점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항상 즐겁고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위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흔히 말해 이러한 정신상태를 도통이라고도 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도 하고, 성불했다고도 하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본성인 신성을 회복하여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영원토록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길이다. 진짜 사람(완성자)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나와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닌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가르침이 모든 경전과 성인이 이

땅위에 펼치고자 하는 뜻이다. 이러한 상태라야 마음의 천국 극락 지상선경 태평천국을 건설했다가 되는 것이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새사람, 거듭난 사람, 성불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말과 표현만 다르지, 진의(眞意)는 다 같다.

사람이 완성자(성인군자 하나님 부처님)가 되어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마땅히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이러한 인생 본연의 일대사(一大事)를 성취하도록, 완성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죽어서 없어질 인생이 다른 무엇을 좇아 정신없이 산다면 그가 뭘 했든 간에,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인생 일대사인 생로병사의 이치와 나의 본질도 모르는 채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뤄도 다 쓸데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지워진 숙명적인 괴롭고 고통, 생로병사의 문제는 바로 피가 더러워져서,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져서 오는 두터운 업장(業障)에 대한 인과응보(因果應報)인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목표이자 가장 큰 일



만성자로부터는 이 세상을 생명의 물질로 변화시키는 오라(이슬성신)가 발한다

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죄업(罪業)을 씻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공부와 수행이 깊어지면 사람이 원하고 바라던 진짜 행복이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 듯’ 찾아온다.

세상의 잘못된 신앙인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서 죄가 없어져 천국 극락 간다는 말이다. 이 말은 시대를 아울러 거짓말 중의 최고로 악한 거짓말에 해당될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공부 없이 피가 맑아질 리 없고, 죄가 없어질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이다. 자신의 피가 맑고 깨끗해지고 죄만 짓지 않으면 행복이 자연스레 찾아들게 되는 것을, 이러한 이치

를 모르고 사람의 행복이 돈과 명예 권력 예술 맹신 등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일평생을 영똥한 일에 건강과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이다. 마치 천국 가려고 영원하면서 그 실제 깨도는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인생의 출발점부터 잘못되고 비뚤어졌는데 어떻게 인간의 운명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 이러한 참 교육과 생명의 문화와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가 단 한번도 제대로 조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완성된 철학 종교 율법 교육이 존재해본 역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젠, 이 이후부터 과거와 현재가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 완성된 철학 종교 학문 율법이 지금에야 나왔기 때문이다. 사람이 완성자(성인군자 부처님 하나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진리의 요체다. 완성자란 흠과 티가 없는 인간, 바로 성인군자요 부처님이요 하나님이었던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이 바로 사람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 속에 내재된 완전한 인격체(신)를 외부의 보이지 않는 신과 또 다른 초월적 존재를 부르짖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이러한 숨은 이치를 깨닫고 발심(發心)과 수도(修道)해서 인간 완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생을 가지도 않고 유한한 것에 바친다면, 그가 일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종래엔 아무 소용 없는 한 줌 흙이 되어버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이제 완성의 학문과 종교가 나왔다는 것은 그간에 캄캄했던 인간사와 세상사의 모든 이치를 밝게 알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보아 알 수가 있다. 사람이 본래 신(완성자 부처님 하나님)이었고, 우리가 다시 본래의 신으로 돌아가면 인간이 그렇게 꿈꾸고 원하던 행복

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감히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말할 수 있다”. 인류를, 아니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모든 종교에서 출현을 고대하던 그 진인 구세주 생미륵불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가르침이 이것인 것이다. 구세주라야 인간의 모든 숙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인간 구원의 소상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오탁악세(汚濁惡世)의 세상에서 내가 구세주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른다. 누구나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참구세주가 나타난다고 각축과 경쟁을 해보아 다 소용 없다. 우리를 구원해 줄 참 구세주인지 아닌지는 바로 인간과 모든 만물의 실상을 과학적 합리적 경험적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판가름의 잣대가 될 것이다. 그래야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진정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 이름 완성자 승리자 구세주일 것이다.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세주는 바로 인생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 목적의식을 갖게 하여 영생의 희망을 주고, 사람이 완성자 부처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조금의 망설임 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